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부인이 이곳에 오긴 오겠지만 아직 때가 멀었소. 남해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라.”
 사 씨가 여쭙었다.
 “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첩에게는 탈 것이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왕비가 말했다.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라.”
 이윽고 좌우에 앉아 있는 부인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위국 부인 장강*, 한나라의 반첩여* 등이 있었다. 사 씨가 다소곳이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뜻밖에도 모든 부인님의 얼굴을 오늘 뵈게 되니 크나큰 영광입니다.”
 드디어 하직을 하고 여동의 인도를 받아 내려오는데, 걸었던 ㉠ 주렴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니 유모와 시비가 부인이 깨신다 하고 부르거늘 사 씨가 일어나 앉으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멍한 정신이 한참 만에야 진정되었다. 입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고 왕비께서 하시던 말씀이 뚜렷했다. 유모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유모와 시비가 대답했다.
 “부인께서 기절하는 바람에 소인들이 간호하여 이제야 깨어나셨는데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
 사 씨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 대나무 수풀을 가리키며 말했다.
 “분명히 저 길로 갔다 왔으니 어찌 꿈이라 하리오.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는 길을 찾아 대나무 수풀 뒤쪽으로 가니 사당이 하나 있었다. 현판이 걸려 있는데 황릉묘*라고 쓰여 있었다. 분명 이황과 여영, 두 왕비의 묘로 ㉢ 풀에서 본 것과 같았다. 사당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두 왕비의 ㉣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이에 사 씨가 향을 피우고 절하며 말했다.
 “첩이 왕비의 가르치심을 입어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나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까?”
 분향을 마친 후 앉아서 신세를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왔다. 시비를 시켜 묘지기 집에 가서 밥을 구해 와서는 세 사람이 나누어 먹었다. 이윽고 사 씨가 말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 신령이 나를 놀리시는구나.”
 앞길이 막막하여 어쩔 줄 모르는 중 별써 달이 밝았다. 세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데 묘문으로 두 사람이 들어와 물었다.
 “어려움을 만나 물에 빠지려 하시는 부인이 아니옵니까?”
 사 씨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한 명은 여승이고 다른 한 명은 여동이였다. 크게 놀라며 말했다.
 “어찌 우리를 아는가?”
 여승이 합장하고 말했다.
 “우리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 꿈결에 관음보살께서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 백를 저어 와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략)

한편 한림학사 유연수는 유배지에 도착하니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 갖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 외로운 가운데 이러한 고생을 하니 **예전의 충명함**이 점점 돌아와 뉘우치며 말했다.
 “사 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옳도다. 어진 아내를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오.”
 밤낮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탄식하니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곳에는 마땅한 의약이 없었다. 병세는 날로 심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루는 흰 옷 입은 노파가 ㉥ 병(甁)을 들고 와서 말했다.
 “상공의 병이 위독하니 이 물을 먹으면 좋아지리라.”
 한림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데 유배당한 사람의 병을 구하시오?”
 노파가 말했다.
 “나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고는 병을 뜰 가운데 놓고 사라졌다. 한림이 놀라 일어나니 ㉦ 풀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다음 날 아침 하인이 뜰을 청소하다가 들어와 고했다.
 “뜰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한림이 이상하게 여겨 창을 열고 보니 꿈에 노파가 병을 놓았던 자리였다. 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해서 마시니 맛이 달고 상쾌한 것이 마치 단 이슬을 먹은 것 같았다. 원래 행주는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이다. 한림의 병도 그렇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이후로도 그 샘은 마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다.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장강 : 춘추 전국 시대 위나라 장공의 아내.

* 반첩여 : 한나라 성제의 후궁.

* 황릉묘 : 순임금의 두 왕비인 이황과 여영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

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 씨’는 꿈에서 ‘왕비’로부터 ‘남해 도인’과 인연이 있어 바다 끝으로 향할 여정이 예비되어 있음을 들었다.
- ② ‘사 씨’가 기절한 사이 ‘유모’는 황릉묘에 가서 ‘사 씨’를 깨울 방도를 찾아 왔다.
- ③ ‘사 씨’는 묘에서 만난 ‘여승’의 말을 통해 여승 일행이 찾아 온 연유를 알게 되었다.
- ④ ‘유 한림’은 전에 ‘동청’을 꺼렸던 ‘사 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 씨’를 의심했다.
- ⑤ ‘마을 사람들’은 ‘유 한림’의 사례를 보고 수질 탓에 생긴 병을 없앨 방도를 찾을 수 있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 씨'가 꿈에서 깨게 되는 소리로, '사 씨'가 비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이다.
- ② ㉡: '사 씨'가 꿈에서 보았던 곳과 같은 장소로, 비현실적 상황과 현실적 상황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 ③ ㉢: '사 씨'가 꿈에서 보았던 왕비의 모습을 환기하는 물건으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사 씨'의 믿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 '사 씨'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 사전에 준비한 수단으로, '사 씨'가 두 왕비와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이다.
- ⑤ ㉤: '유 한림'이 꾸 꿈에 등장한 물건으로, '유 한림'이 처한 위급한 상태를 호전시킬 방도가 생기게 하는 단초이다.

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꿈을 꾸 주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출현한다.
- ② ㉠과 ㉢에는 모두 꿈을 꾸 주체가 만나고 싶어 하던 역사적 인물이 등장한다.
- ③ ㉠과 ㉢에는 모두 꿈을 꾸 주체가 처한 고난이 심화될 것임을 암시하는 징표가 제시된다.
- ④ ㉠에는 ㉢에서와 달리, 꿈을 꾸 두 주체가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나타나고 있다.
- ⑤ ㉢에는 ㉠에서와 달리, 꿈을 꾸 주체의 출생 내력이 제시되어 있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18세기의 선비인 이양오는 「사씨남정기」를 읽고 「사씨남정기 후서」를 썼다. 그는 이 소설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복선화음'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주목한다. 한편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기이한 만남이 나타나는 등 허구적인 이야기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된다면 이를 두고 괴이하거나 맹랑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평한다. 그러면서 "말이 교화에 관련되면 괴이해도 해롭지 않고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괴이하고 헛되어도 기뻐할 만하네."라는 김시습의 시 구절을 인용하였다.

- ①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얻은 질병이 '단 이슬'과 같은 물로써 치료된다는 설정에서, 유 한림의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고초를 겪는 가운데 '예전의 총명함'을 회복하는 장면에서,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겠군.
- ③ 사 씨의 꿈에서 예견된 인도자와의 인연이 '여승'의 꿈에서 계시된 바와 조응하여 '여승' 일행이 사 씨를 찾는 장면에서,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학사정이 생기게 된 유래가 신이하지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한 점에서, 허구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되므로 괴이한 것만으로는 볼 수 없겠군.
- ⑤ 유 한림에게 갖은 고초를 줄 만큼 '인심이 사나웠던' 행주 사람들이 샘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복선화음의 이치를 깨달은 데서, 그 이야기를 맹랑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18세기의 선비인 이양오는 「사씨남정기」를 읽고 「사씨남정기 후서」를 썼다. 그는 이 소설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복선화음'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주목한다. 한편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기이한 만남이 나타나는 등 허구적인 이야기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된다면 이를 두고 괴이하거나 맹랑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평한다. 그러면서 “말이 교화에 관련되면 괴이해도 해롭지 않고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괴이하고 헛되어도 기뻐할 만하네.”라는 김시습의 시 구절을 인용하였다.

✓ 읽기 전 활동

위 작품은 '복선화음'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과오가 있어도 잘못을 깨닫는 과정에서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속 일 등 허구적인 이야기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위 작품에 이러한 내용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작품을 읽어 봅시다.

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부인이 이곳에 오긴 오겠지만 아직 때가 멀었소. 남해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오. 이 또한 하늘의 뜻이나라.”

사 씨가 여쭙었다.

“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첩에게는 탈 것이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왕비가 말했다.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라.”

이윽고 좌우에 앉아 있는 부인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위국 부인 장강*, 한나라의 반첩여* 등이 있었다. 사 씨가 다소곳이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뜻밖에도 모든 부인님의 얼굴을 오늘 뵈게 되니 크나큰 영광입니다.”

드디어 하직을 하고 여동의 인도를 받아 내려오는데, 걸었던 주름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니 유모와 시비가 부인이 깨신다 하고 부르거늘 사 씨가 일어나 앉으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명한 정신이 한참 만에야 진정되었다. 입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고 왕비께서 하시던 말씀이 뚜렷했다. 유모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유모와 시비가 대답했다.

“부인께서 기절하는 바람에 소인들이 간호하여 이제야 깨어나셨는데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

사 씨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대나무 수풀을 가리키며 말했다.

“분명히 저 길로 갔다 왔으니 어찌 꿈이라 하리오.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따라오라.”

* 장강 : 춘추 전국 시대 위나라 장공의 아내.

* 반첩여 : 한나라 성제의 후궁.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우선 왕비와 사 씨가 등장합니다. 왕비는 사 씨에게 이곳에 오는 것이 아직 때가 멀었다며 남해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 씨는 남해에 어떻게 갈 수 있냐 묻고 왕비는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비는 사 씨에게 여러 부인들을 소개해주게 됩니다. 사 씨는 이에 영광스러워하며 내려오는데, 소리가 요란해 몸을 일으키니 꿈이었습니다. 사 씨는 꿈속에서 있던 일을 다 말하고 수풀을 가리키며 꿈속에서 저 길로 갔다 왔다고 저기로 가자고 합니다.

사 씨가 곧 꿈의 이야기는 〈보기〉에서 나타난 꿈속에서 벌어지는 허구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 씨는 어찌 꿈이라 하겠냐며 대나무 수풀을 가리키며 저기로 갔다 왔다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사 씨의 꿈속 이야기와 현실이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꿈속 이야기가 작품 전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길을 찾아 대나무 수풀 뒤쪽으로 가니 사당이 하나 있었다. 현판이 걸려 있는데 황릉묘*라고 쓰여 있었다. 분명 아황과 여영, 두 왕비의 묘로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사당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두 왕비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이에 사 씨가 향을 피우고 절하며 말했다.

“침이 왕비의 가르침을 입어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나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까?”

분향을 마친 후 앉아서 신세를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왔다. 시비를 시켜 묘지기 집에 가서 밥을 구해 와서는 세 사람이 나누어 먹었다. 이윽고 사 씨가 말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 신령이 나를 돌리시는구나.”

앞길이 막막하여 어쩔 줄 모르는 중 벌써 달이 밝았다. 세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데 묘문으로 두 사람이 들어와 물었다.

“어려움을 만나 물에 빠지려 하시는 부인이 아니옵니까?”

사 씨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한 명은 여승이고 다른 한 명은 여동이였다. 크게 놀라며 말했다.

“어찌 우리를 아는가?”

여승이 합장하고 말했다.

“우리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 꿈결에 관음보살께서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배를 저어 와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 황릉묘 :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사 씨는 길을 찾아 대나무 수풀 뒤쪽으로 가 황릉묘를 찾게 됩니다. 분명 사 씨가 꿈에서 본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

게 사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게 됩니다. 분향을 마친 후 사 씨는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오게 됩니다.

이를 보면 사 씨가 현재 처한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는 알 수 없어도, 사 씨의 상황이 슬픈 상황임은 파악했어야 합니다.

사 씨는 앞길이 막막해 갈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고 묘문으로 두 사람이 들어오며 물에 빠지려 하는 부인이 아니냐고 사 씨에게 묻습니다. 사 씨는 어찌 우리를 아냐고 하고, 그 여승은 꿈결에서 관음보살이 부인을 황릉묘에 가서 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앞서 사 씨의 꿈에서 왕비가 말해주 인도하는 자가 이 여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꿈속 이야기가 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꿈속 이야기가 작품 전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략)

한편 한림학사 유연수는 유배지에 도착하니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 갖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 외로운 가운데 이러한 고생을 하니 예전의 충명함이 점점 돌아와 뉘우치며 말했다.

“사 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옳도다. 어진 아내를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오.”

밤낮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탄식하니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곳에는 마땅한 의약이 없었다. 병세는 날로 심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루는 흰 옷 입은 노파가 병(瓶)을 들고 와서 말했다.

“상공의 병이 위독하니 이 물을 먹으면 좋아지리라.”

한림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데 유배당한 사람의 병을 구하시오?”

노파가 말했다.

“나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병을 뜰 가운데 놓고 사라졌다. 한림이 놀라 일어나니 꿈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다음 날 아침 하인이 물을 청소하다가 들어와 고했다.

“뜰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한림이 이상하게 여겨 창을 열고 보니 꿈에 노파가 병을 놓았던 자리였다. 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해서 마시니 맛이 달고 상쾌한 것이 마치 단 이슬을 먹은 것 같았다. 원래 행주는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이다. 한림의 병도 그렇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이후로도 그 샘은 마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다.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황릉묘: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중략 이후에는 한림학사 유연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유배를 간 인물입니다. 유연수는 사 씨를 어진 아내라고 하며 의심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중략 이전에 사 씨가 처한 부정적 상황이 유연수가 사 씨를 의심한 것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작품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유연수가 사 씨를 의심했다는 것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한림은 이렇게 탄식하다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림은 꿈에서 노파를 만나게 되고, 병에 든 물을 마시면 한림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꿈을 꾸 후 다음 날, 뜰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물을 마시자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또 꿈속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 작품에서 꿈속 이야기가 작품 전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합니다.

#작품 총평

작품 전개에 있어 꿈속 이야기가 중요했음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꿈속 이야기를 통해 계속해서 작품이 전개된다는 것만 파악하셨다면 작품을 읽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 '사 씨'는 꿈에서 '왕비'로부터 '남해 도인'과 인연이 있어 바다 끝으로 향할 여정이 예비되어 있음을 들었다.

→ '왕비'는 꿈에서 '사 씨'에게 이곳에 오긴 오겠지만 아직 때가 멀었다며 남해 도인이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늘의 뜻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듣고 '사 씨'는 남해가 바다 끝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곳을 어찌 갈 수 있겠냐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 씨'는 '왕비'를 통해 '남해 도인'과 인연이 있어 바다 끝인 남해로 향할 여정이 예비되어 있음을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사 씨'가 기절한 사이 '유모'는 황릉묘에 가서 '사 씨'를 깨울 방도를 찾아 왔다.

→ '사 씨'가 기절해 꿈을 꾸는 사이 '유모'와 시비는 '사 씨'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사 씨'의 말을 듣고 황릉묘를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모'가 '사 씨'가 기절한 사이 황릉묘에 가 '사 씨'를 깨울 방도를 찾아 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③ '사 씨'는 묘에서 만난 '여승'의 말을 통해 여승 일행이 찾아 온 연유를 알게 되었다.

→ '사 씨'는 묘에서 '여승'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승'은 꿈에서 관음보살이 어진 여자가 방황하니 황릉묘로 가 구하라는 말을 듣고 이 곳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 씨'는 '여승'의 말을 통해 여승 일행이 찾아온 연유를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유 한림'은 전에 '동청'을 꺼렸던 '사 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 씨'를 의심했다.

→ '유 한림'은 '사 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이제 와 생각하니 그 말이 옳다면서 예전에 아내를 의심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유 한림'이 전에 '동청'을 꺼린 '사 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 씨'를 의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⑤ '마을 사람들'은 '유 한림'의 사례를 보고 수질 탓에 생긴 병을 없앨 방도를 찾을 수 있었다.

→ '마을 사람들'은 '유 한림'이 뜰에서 난 물을 마시고 병에 나은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시고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마을 사람들'은 수질 탓에 생긴 병을 없앨 방도를 찾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

- ㉠ 주렴을 내리는 소리
- ㉡ 대나무 수풀
- ㉢ 초상화
- ㉣ 배
- ㉤ 병(甁)

① ㉠ : '사 씨'가 꿈에서 깨게 되는 소리로, '사 씨'가 비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이다.

→ '사 씨'는 꿈을 꾸다가 ㉠을 듣고 놀라 몸을 일으켜 꿈에서 깨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 '사 씨'가 비현실 세계인 꿈속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 : '사 씨'가 꿈에서 보았던 곳과 같은 장소로, 비현실적 상황과 현실적 상황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 '사 씨'는 유모와 시비를 데리고 ㉡을 가리키며 분명히 저 길로 갔다 왔다면서 어찌 꿈이라 하겠냐고 합니다. 그러므로 ㉡은 '사 씨'가 꿈에서 보았던 곳과 같은 장소로, 비현실적 상황인 꿈속 상황과 현실적 상황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 ㉢ : '사 씨'가 꿈에서 보았던 왕비의 모습을 환기하는 물건으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사 씨'의 믿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사 씨'는 두 왕비의 ㉢을 보고 꿈에서 본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사 씨'가 꿈에서 보았던 왕비의

모습을 환기하는 물건이고, 초월적 존재인 꿈속 왕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④ ㉣ : '사 씨'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 사전에 준비한 수단으로, '사 씨'가 두 왕비와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이다.

→ ㉣은 '사 씨'가 준비한 수단이 아니라 여승이 준비한 수단입니다. 여승은 꿈에서 관음보살의 말을 듣고 ㉣을 타고 와 '사 씨'에게 오게 됩니다. 완전히 틀린 선지입니다.

⑤ ㉤ : '유 한림'이 꿈 속에서 등장한 물건으로, '유 한림'이 처한 위급한 상태를 호전시킬 방도가 생기게 하는 단초이다.

→ '유 한림'의 꿈속에서 한 노파가 ㉤을 '유 한림'에게 주며 이 물을 먹으면 병이 좋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은 '유 한림'이 처한 위급한 상태를 호전시킬 방도가 생기게 하는 단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

- ㉠ 꿈
- ㉡ 꿈

① ㉠과 ㉡에는 모두 꿈을 꾸 주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출현한다.

→ ㉠의 꿈을 꾸는 주체는 사 씨입니다. 그리고 ㉡의 꿈을 꾸는 주체는 유 한림입니다. 먼저 ㉠에서 등장한 왕비는 사 남해 도인에게 의탁하게 될 것이라며 곧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 실제로 여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에서는 노파가 유 한림에게 병을 주면서 이 물을 먹으면 병세가 좋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과 ㉡ 모두 꿈을 꾸 주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과 ㉡에는 모두 꿈을 꾸 주체가 만나고 싶어 하던 역사적 인물이 등장한다.

→ ㉠에서는 왕비, 위국 부인 장강, 한나라의 반첩여 등이 등장합니다. 사 씨는 이들을 보고 모든 부인님의 얼굴을 뵈게 되니 큰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꿈을 꾸 주체인 사 씨가 만나고 싶어 하던 역사적 인물이 등장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 노파가 역사적 인물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한림이 노파를 만나고 싶어 하던 인물이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③ ㉠과 ㉡에는 모두 꿈을 꾸 주체가 처한 고난이 심화될 것임을 암시하는 징표가 제시된다.

→ ㉠과 ㉡ 둘 다 꿈을 꾸 주체가 처한 고난이 심화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 ㉡ 모두 꿈을 꾸 주체가 처한 고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④ ㉠에는 ㉡에서와 달리, 꿈을 꾸 두 주체가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나타나고 있다.

→ ㉔와 ㉕ 모두에서 꿈을 꾸 두 주체가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㉔를 꾸는 주체는 사 씨이고, ㉕를 꾸는 주체는 유 한림입니다. 두 부분 모두에서 꿈을 꾸 두 주체가 공유하는 기억에 대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㉖ ㉗에는 ㉔에서와 달리, 꿈을 꾸 주체의 출생 내력이 제시되어 있다.

→ ㉔와 ㉕ 모두에서 꿈을 꾸 주체의 출생 내력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 씨나 유 한림의 출생의 내력을 꿈속 내용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㉕

<보기>

18세기의 선비인 이양오는 「사씨남정기」를 읽고 「사씨남정기 후서」를 썼다. 그는 이 소설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복선화음'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주목한다. 한편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기이한 만남이 나타나는 등 허구적인 이야기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된다면 이를 두고 괴이하거나 맹랑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평한다. 그러면서 "말이 교화에 관련되면 괴이해도 해롭지 않고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괴이하고 헛되어도 기뻐할 만하네."라는 김시습의 시 구절을 인용하였다.

㉑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얻은 질병이 '단 이슬'과 같은 물로써 치료된다는 설정에서, 유 한림의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엿볼 수 있겠군.

→ <보기>에서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바뀌는 경우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유 한림은 어진 아내인 사 씨를 의심한 과오에 대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 후 좋지 않은 물로 얻은 질병을 '단 이슬'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유 한림이 사 씨를 의심했던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㉒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고초를 겪는 가운데 '예전의 총명함'을 회복하는 장면에서,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겠군.

→ 이 선지는 ㉑번 선지와 유사한 선지입니다.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고초를 겪다가 사 씨를 의심한 것에 대해 뉘우치며 '예전의 총명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는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㉓ 사 씨의 꿈에서 예견된 인도자와의 인연이 '여승'의 꿈에서 제시된 바와 조응하여 '여승' 일행이 사 씨를 찾은 장면에서,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엿볼 수 있겠군.

→ 사 씨의 꿈에서 왕비는 길을 인도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승'이 사 씨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승' 또한 꿈에서 관음보살을 만나 사 씨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는 꿈에서 제시된 바를 통해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㉔ 학사정이 생기게 된 유래가 신이하지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한 점에서, 허구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되므로 괴이한 것만으로는 볼 수 없겠군.

→ 유 한림의 꿈속 이야기를 통해 학사정이 생기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사정의 유래가 허구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되기에 괴이한 것만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작가의 생각이 잘 나타납니다.

㉕ 유 한림에게 갖은 고초를 줄 만큼 '인심이 사나웠던' 행주 사람들이 샘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복선화음의 이치를 깨달은 데서, 그 이야기를 맹랑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 유 한림에게 고초를 줄 만큼 행주 사람들이 '인심이 사나웠'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주 사람들이 복선화음의 이치를 깨달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샘에 얽힌 이야기를 들은 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셔 물로 인한 병이 없어졌다고만 하지, 마을 사람들이 복선화음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내용은 작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